

법회안내

무진법장사(02)932-2333

일요화엄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화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장년화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지역법회 매주 목·금 오후2시

미타사(02)662-4736

산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0시
미륵기도 매월 8일(음) 오전10시
지장기도 매월 18일(음) 오전10시
철야참선 매주 토 오후10시

불암사(0364)65-8345

초하루·인명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3일간)
지장기도 및 108회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3일간)
관음기도 매월 24일(음)
오전10시(3일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051)402-7077

장기법회 매월 첫째 일 오전11시
산악신도교육 둘째 일 오후2시
특별장전법회 1·15일(음) 오전11시
특별철야정진 2·4주 토 오후10시
목요선법회 2·4주 목 오전10시
청년회 매주 수 오후7시
중·고학생회 매주 일 오후7시
어린이회 매주 일 오전11시

해인사 대전 포교당
(042)253-7854

정기법회 및 산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0시
보은전법회 매월 8일(음) 오전10시
보은연법회 5일(음) 오전10시
호법장전기도 29일(음) 오전10시

직지사(0547)436-4317

가사법회 매월 셋째 일 오후2시
관음화법회 19일(음) 오전10시(3일간)
지장화법회 18일(음) 오전10시(3일간)
청년화법회 매주 토 오후6시
중고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
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86)로 연락바랍니다.

“종단협조 자율운영 조화이룰 터”

조계종 중앙신도회 송재진 초대회장

“중앙신도회장이라는 자리는 삼보를 의호하고 신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하는, 그야말로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않고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조계사대웅전에 서 봉행된 조계종중앙신도회 창립법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송재진씨(중원실업

대표)는 스님과 불자들의 협조를 바란다는 말로 선출소감을 대신하면서 이후 중앙신도회 운영방안을 밝혔다.

“전국신도회와는 머지않아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대의원을 배정하고 박완일 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했습니다.”

송회장은 “회장을 비롯한 몇몇 사람에게 의해서 운영되는 신도회가 되어서는 안된



않는다고 밝혔다. 송회장은 또 '95년부터 회장직 제의가 있었으나 자질

이 없다고 판단해 이번 기회에 송재진 씨가 송회장을 맡게 된다는 소식을 받고 회장직을 수락했다”며 “정치권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총은동 옥천암과 직할교구 신도회장이기도 한 송회장은 69년 수덕사 조실스님이던 해암스님으로부터 신도5계를 수지했으며, 매일아침 20분씩의 기도를 생활화하고 있다. 법명은 법성(法性).

정성운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취임식

태고종 제18대 총무원장 인곡스님 취임법회가 지난 19일 백련사에서 열렸다.

취임법회에는 보성 태고종 종장, 덕암 선암사 방장, 금담 종회의장, 원서(종단협 상임부



대전 서구노인복지관 개관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관장 도영스님, 금산사 주지)이 지난 15일 현수스님(대전사암련 회장) 홍성기 대전시장 이인구의원 이현구 서구청장 이용권국장(조계종 사회복지재



대구경불련 창립대회

대구 경실련내의 불자모임 인 대구경불련이 지난 15일 진각법당 7층 문화회관에서 회원 40여명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됐다.



불국사스님 '1m 1원' 동아마라톤 동참

불국사스님 9명이 지난 16일 경주에서 벌어진 동아국제마라톤대회에서 자비의 레이스를 펼쳤다. 자성(총무국장) 혜원(사회국장)스님 등은 백혈병 어린이가 돌기 '1m에 1원' 성금을

“신도 참여하는 각종 사업 전개”

진각종 총금강회 박종태 회장

“신도회 단합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또 종단내 복지법인을 만들어 사회복지사업도 펼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진각종(통리원장 락해) 총금강회(전국신도회) 제3대 회장에 취임한 박종태(64세)씨는 커다란 목적 보다는 모든 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발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복지법인 구상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를 통해 종단과 사회를 연결하는 교두보를 삼겠



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종단발전 도모와 화합은 물론 각종단체도 협력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도 덧붙였다.

박종태회장은 현재 (주)고려인삼주식회사 회장과 남북통일축진회 최고위원 등을 맡고 있다.

한명우 기자

강남포교원 출가-열반절 강건기교수 특강

부처님 출가절-열반절을 맞아 강남포교원(원장 성원)은 지난 20일 강건기교수(전북대)를 초청 ‘새로운 문명의 진화과 불교’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었다. 강연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편집자 주〉

오늘날 세계는 걸음로는 물질적인 성취로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지만, 속으로는 인류의 파멸을 초래하는 심각한 환경·생태계 문제 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



100년내에 파멸에 이를 것’이란 놀라운 결론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가 발표된지 25년이 지났지만 적잖은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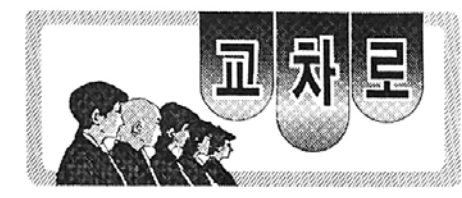
“불교생명사상으로 지구파멸 극복을”

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다른 생명으로 나뉘는 정복과 착취를 일삼는 인간중심주의의 이원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는 세계 지식들은 한결같이 ‘오늘날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다. MIT 과학자들이 1971년 로마클럽에서 발표한 ‘성장의 한계’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산업성장이 앞으로 10년내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지구는

구 온난화 현상과 오존층·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렇다면 병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현대문명이 표방하는 서구적 휴머니즘이다. 나와 남, 나와 다른 생명, 나와 자연을 분리하는 인간중심주의이다. 이러한 물질문명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보는 불교의 ‘생명주의’가 필요하다.



정치지도자 초청강연

월탄 동국대 승가총무원회장 스님은 오는 31일 오후 3시 소피텔 엠베서더호텔 불문에서 '97 정기총회 및 '21세기 정치와 종교'를 주제로 정치지도자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학생 21명에 장학금 전달

원형 삼화사 주지는 지난 16일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문봉수군(목호중) 등 2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불교대구교육원 9월 법회

태일 불교대구교육원장스님은 지난 21일 대구 고려예식장에서 개인 9주년 기념법회를



다보법회에서 설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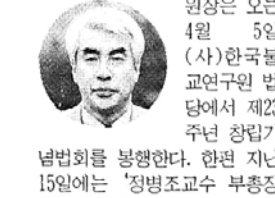
해담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스님은 26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3월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02)703-0108

지방고시 합격자에 특강

1회 지방고시 합격자 신규인용자를 대상으로 '지금 이순간 우리 한국인 무엇을 어떻게 하려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한국불교청년 23일 법회

정병조 (사)한국불교연구원



해군 군종감 취임

김남석 법사는 최근 해군 군종감에 임명돼 오는 4월 13일 계룡대 호국사에서 취임법회를 갖는다.

오늘의 미술가상 수상

김영선화백(42·한마음선원 신도)이 월간 <미술시대>가 제정한 제4회 '오늘의 미술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주말농장 분양=부산 선암사

(주지 해민)는 백양산 중턱에 자리한 2천여평의 주말농장을 불자가전에 분양한다. (051)803-7573

요목 3만그루 무료배포=나라사랑 무궁화구기회

법국민운동본부(위원장 김정복)는 25일~4월 5일까지 동방원에종묘 나무전시장에서 요목 3만그루를 무료배포한다. (02)875-9340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사무실을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신관 2층으로 이전했다. (02)752-8191

대한불교연화회가 사무실을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호 원당빌딩 3층으로 이전했다. (02)732-9618

게시판

땅끝마을 기행=부산 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은 '불과 꽃과 나무 그리고 바다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4월 5, 6일 해남 땅끝마을, 보길도, 옥소암 등을 답사한다. (051)466-4080

운주사 답사=법명사 부부나 포교원(원장 김재일)은 오는 30일 화산 운주사를 순례한다. 아침 6시 포교원 앞에서 출발하며 회비는 2만원. (02)571-9741

도감사 기행=정광사(주지 송암)는 오는 4월 13일 오전 4시 도감사, 월출산 등지로 정

광 바라질 국토순례를 떠난다. (02)598-5291

광교 불교신행학당=석왕사(주지 영담)는 '불교신행학당' 초급반을 개설한다. 강의는 4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수·금 오후2시. (032)663-7771

학습지도 교사=개금 사회복지관(관장 범산)은 초등학생 학습지도교실 교사를 모집한다. 정규대학 졸업자 및 경력자. (051)883-5034

동국대 경주 불교학과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동문회(회장 대혜스님)는 4월 5일 오후3시 정각원에서 화교개설 10주년 기념법회를 갖는다. (0547)436-3799

115

채워지면 비워라. 비우면 또 채워진다.

“우리들의 살림살이는 흐르는 물과 같다. 도도하게 흐를 뿐이니 담야 돌 것이 없다. 그대로 여여할 뿐이다. 걸음걸이를 보라. 한 발씩 내딛으면 뒷 발짝 없어지고 또 한 발 내딛으면 또 한 발 없어진다. 때어놓은 발자국을 아쉬워하면서 걷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본래 그렇게 놓고 간다. 먹으면 배설해야 하고 일이 닳치면 닳치는대로 겪으면서 흘려간다. 보는 것 듣는 것도 다 그러하다. 마치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런데 흐르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붙잡으려 한다면, 집착한다면 그대로 마음의 짐이 되어 업으로 남는다. 흘러가질 못하고 내 마음의 때로 남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놓고 가라고 하는 것이다.”

다. 오직 흐름 그 자체일 뿐이다. 옛 사람들은 그래서 물 같은 삶을 으뜸으로 여겼다. ‘청산은 날 보고 산 같이 살라하고 녹수는 날 보고 물 같이 살라라네’ 하고 읊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가. 물 같은 삶은 바로잡고 덧없는 삶으로 여긴다. 가능하면 내 곁에 잡아두고 나를 위한다는 생각에 흐름을 거슬러려 한다. 재물을 쌓고 자리를 다두고 모든 흐름이 나의 바람을 따라 좌우지 되어야 한다고 고집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다들다. 싸우고 경쟁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고 다툰다. 때로는 자만하고 때로는 괴로워한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폭력·술수·중요·전쟁에 대해 서조차 명분을 붙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이라는 이름으로 탐욕을 당연시하고, 탐욕을 가르치고 이를 심화해 나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는가. 결론은 변하다. 집단을 기준으로 본다면 경쟁은 투쟁으로, 투쟁은 전쟁으로, 전쟁은 동족상잔, 인종정소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개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경쟁은 증오로, 증오는 술수로, 술수는 폭력과 범죄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는 마침내 만인이 만인(萬人)과 싸우는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랑과 자비는 퇴조하여 마침내 불치의 단계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잡아 가두면 썩거나 터지게 된다. 그것은 순리이다. 조금도 특별하게 없는 평범한 진리이다. 고로 우리의 노력이란 그런 흐름을 타는 것, 그런 흐름에 순응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흐름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내용이다. 그렇게 가는 것이 이른바 능력있는 삶이 된다. 먹기만 하는 것, 들이 쉬기만 하는 것, 잡아가물 줄만 아는 것, 그것은 잘하는 일도, 능력있는 삶도 아니다. 그것은 착각이요 탐욕일뿐이다. 인생의 오류일 뿐이다.

물은 빈 자리를 메우며 흐른다. 가두지 않고 흐르게 내버려두면 흘러나간 만큼 흘러들어온다. 재물도 물과 같고 권력도, 명예도, 나아가 건강까지도 물과 같다. 물처럼 흐르는 삶이 여려한 마음이다. 비우면 채워지고 채워지면 비우는 게 바른 삶이다. 묶으면 썩는다. 썩으면 고통밖에 남는게 없다.

흐르는 물은 앞서거나 뒤처지니 자리를 닦지 않는다. 그냥 흐를 뿐이다. 흐르다가 막히면 돌아서 가고 흐르다가 갇히면 채워서 넘쳐 흐른다. 때로는 급하게 흐르다가 또는 서두름이 흐른다. 빨리 간다고 뿔내지 않고 늦게 간다고 안타까워하지 않

우리들의 삶은 대체로 '내 눈에 물을 대는 노력'과 다르지 않다. 우리들이 공인하는 능력이란 대개 아전인수(我田引水)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연스런 흐름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물꼬를 넓혀서 내 눈에 많은 물을 대고 그것을 가두어 두는 것을 유능하다고 한다. 나아가서는 그런 일들을 자못 인간적인 일이

계속해서 먹기만 할 수는 없다. 무한정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먹으면 배설해야 하고 먹은 만큼 먹었으면 멈춰야 한다. 계속해서 숨을 들이 쉴 수만은 없다. 들이 쉬었으면 내 쉬어야 한다. 흘러드는 물도 무한정 잡아 가둘 수는 없다. 흘러들었으면 그만큼 흘러 보내야 한다.

협찬 : 故 오순탁